

경력개발센터

학내 기관 탐방

- 본교는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의 유현실 전문위원회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교의 경력개발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센터는 크게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과 취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학부·대학원 등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로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 신입생 단계부터 진로 설계를 돋고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취업 준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기업설명회 및 채용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유현실 전문위원

경력개발센터의 연혁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의 전신은 대학생활문화원 소속이었던 진로취업센터입니다. IMF 이후 국내 각 대학교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타개 할 목적으로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진로 및 취업을 전담하는 기관들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도 2002년 9월 본부 차원에서 진로 취업에 관한 기본 계획이 세워졌고 2003년 7월에 대학생활문화원 소속의 부속기관으로 진로취업센터가 설립되고 센터장 이하 박사급 전문위원, 조교, 행정직원을 두고 본격적인 진로 취업 서비스를 시작하

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본부 학생과 소속에 취업정보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학생 아르바이트 알선, 기업들의 채용설명회나 채용 공지를 지원하는 업무에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로취업센터가 설립된 이후 2004년 가을에 문화관과 체육관에서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후 학내 외에서 학생들의 진로 취업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로취업센터가 본부 총장 직속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2일에 '경력개발센터'의 설립 규정이 공포되었고, 2006년 5월 15일에 정식으로 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경력개발센터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로취업센터가 경력개발센터로 바뀐으로써 달라진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활문화원 소속이 아닌 본부 직속 기구로 승격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는 진로취업센터장 이하 실무 책임자가 전문위원 1인 이하의 단일 조직이었고 진로 상담 및 교육 업무와 취업 지원 업



무가 전문화되지 못하였는데, 경력개발센터 체계에서는 규정상으로도 진로상담부·취업지원부·진로정보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부의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진로상담부에서는 진로 검사와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진로 교육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 구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담당합니다. 취업지원부는 채용설명회 지원, 채용박람회 개최 등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진로정보부는 재학생과 졸업생에 관한 진로 정보, 취업 및 기업 정보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외에 부속 행정실에서는 저희 센 터와 관련된 여러 회계나 서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부서에는 전임교원 중에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인 이내의 교내 교수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센터의 각종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센터가 독립하였지만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을 선임하지 못하 고 있고, 규정상으로는 3개 부서의 조직이 갖추어졌을 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을 충분히 충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임직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박사급 전문위원 1인, 석사급 조교 1인, 행정직원 1인, 그리고 학사조교 1인으로 총 4인뿐입니다. 이외에 시 간제로 근무하며 프로그램 진행과 상담 업무를 보조하는 석사과정 대학 원생 3인이 있고, 공익근무요원과 봉사 장학생들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 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업무의 양에 비해 전임직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상의 조직들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력개발센터의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저희 센터에 대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 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학기에는 센터를 학내외에 알리는 데 주

력하였습니다. 정보화광장, 게시판, 포스터, 현수막, 가두 홍보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저희 센터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여 이번 학기부터는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나눈 경력개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경력개발 초급 워크숍 과정은 진로 목표와 생애 설계가 필요한 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하고, 중급과정은 어느 정도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군이 정해진 2·3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정으로 구체적인 기업을 방문하고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선배들과 멘토링 관계를 맺으며 기업 업무를 간접 체험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개발 고급과정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비슷한 직업 영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소집단 활동을 하며 입사시험 대비 서류 작성부터 면접 대비 등을 워크숍 형태로 배웁니다. 예년에는 취업 준비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이력서 작성법이나 면접 대비 전략 등에 관한 단회성 이벤트식의 특강 행사가 많았습니다. 물론 올해도 이러한 공개 특강은 진행하지만, 실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력개발 워크숍 고급과정이라는 회기별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고급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 안에서 세부 영역별 스터디그룹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혼자하다 보면 정보의 부족을 많이 느끼는데, 고급과정 워크숍을 함께 참여하면서 동시에 스터디 정보나 기업 정보를 공유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외에 9월 마지막 주는 Career Alumni Week라는 이름의 특별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선배에게 듣는 직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서 금융권·대기업·컨설팅 등의 세 분야에서 선배들이 참여하여 공개특강을 해주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행사는 대개 한 분야에 대하여 신입 단계, 5년차, 10년차 등 경력이 조금씩 다른 선배들을 한자리에 초청합니다. 초청된 선배들은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학생들은 업무·전망·급여 등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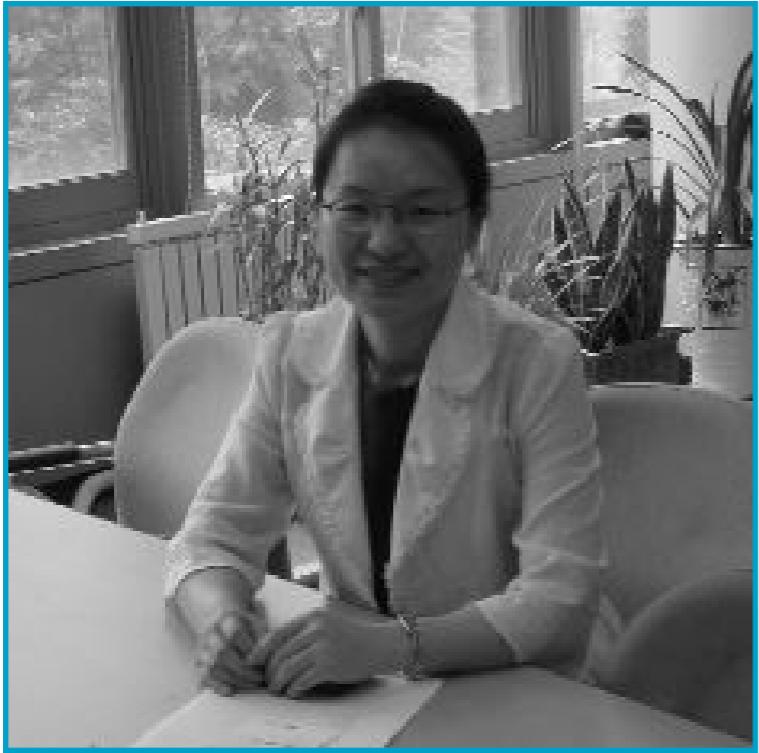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에서 직접 일을 하는 선배에게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졸업을 목전에 둔 학생들이나 모두 편하게 와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강의실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매번 같은 요일의 같은 시간에 하다보니 그 시간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은 항상 못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진행 시간도 조금 늦춰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며 이후 1시간 동안은 초청된 선배들과 보다 긴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다과를 겸한 간담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방송 및 언론계, 광고 및 마케팅 분야, 고시 분야, 공기업 분야 등 4개 분야의 선배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고시 그 이후 커리어'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행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소위 고급 자격증 시험을 합격한 후 진출



하게 되는 다양한 커리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고급 자격증 소지자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고시 합격이라는 눈앞의 목표를 넘어서 이후에 어떠한 커리어의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주어질 때 무분별한 고시 준비 행태가 오히려 수그러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저희 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국제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인턴쉽 활성화입니다. 국제 취업 경쟁력과 관련하여 'Global Talent Program'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세 시간씩 전체 10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먼저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거쳐서 분반이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인턴쉽 준비와 사례 토론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여간에 맞는 현지 인턴쉽을 하는 회사들을 검색하고, 인턴쉽에 대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준비합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앞으로 글로벌 기업에 취직해서 업무를 보는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 현지의 문화와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례들을 토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강사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외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MBA 출신의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회기별 강의 평가와 사후 인턴쉽 성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인턴쉽박람회를 10월 16일에 개최합니다. 최근 학생들이 인턴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구체적으로 인턴쉽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업체에서 인턴쉽을 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턴쉽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인턴쉽박람회 행사를 실시하여 인턴쉽이 활성화된 기업들을 초청하여 부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전에 인턴쉽을 경험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그들로부터 특강도 듣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 저희 센터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센터 정보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온라인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설 이력서 교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커뮤니티 기능을 새로이 보강하여 각 프로그램 참여자들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회원들의 개인 이메일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겨울방학 중 여학생 경력개발 아카데미, 교직원 자녀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각종 특강 등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새 학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을학기 개강 첫 주인 9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센

터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2006 서울대 우수인재 채용박람회’가 문화관 인근 야외에서 대대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이 박람회는 국내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로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바라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교수학습개발센터와는 장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기업에 지원할 때 영어 면접, 토론, 말하기 등의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1대 1로 말하는 것은 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집단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다른 경쟁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15분 이내에 기업 업무와 관련하여 핵심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반대 의견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졸업 전에 배울 수 있다면 홀륭한 경력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양 센터의 비용이나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저희 센터를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민혜리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교수